

## Bruce Waltke 박사, 시편, 강의 7

© 2024 브루스 월트케(Bruce Waltke)와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Bruce Waltke입니다. 일곱 번째 모임은 찬송가, 찬양의 이유, 찬송가 신학입니다.

기도: 모든 은혜의 수단, 곧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손을 우리 악행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 입술을 우리의 가난한 말과 그릇된 말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사역이 넉넉한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에 영감을 주신 성령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성령이 당신의 말씀을 밝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게 이 일을 정직하고 은혜로우며 지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얼마나 죄 많은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서 난 것입니다.

이 강좌를 듣는 모든 학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천하고 낙담합니다. 그들이 격려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하고 자신감을 느낍니다. 그들이 당신의 말씀에 겸손해지게 하소서. 같은 말이지만 우리는 각 학생에게 다르게 사역할 것입니다.

당신의 성령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적절하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괜찮은.

우리는 시편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는 시편 자체의 신학이나 시편에서 수집할 수 있는 영적 삶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학생들에게 평생 동안 시편을 연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교화를 위해 시편의 신학적, 영적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접근 방식은 우리에게 시편의 저자임을 알려주는 위 첨자를 받아들이는 역사적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중 73개가 David의 작품입니다. 나는 대부분의 학계를 상대로 그 위 첨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약성서에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다윗은 실제로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편을 이해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에서 말하는 내가 왕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시편에서 왕이 매우 지배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더 폭넓게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에서는 왕에 대해 자주 언급하며 심지어 다윗의 왕이 아닌 왕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래서 순례 시편인 시편 84편에서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왕을 위해 기도합니다. 왕은 왕국을 대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의 해석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왕으로 이해하고 다윗의 아들은 본질적으로 다윗의 아들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다윗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왕에 관한 것이므로 다윗 가문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신약성서의 해석은 구약성서에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가 발전하는 궤적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오늘날 교회, 즉 여러분과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다루고 있는 문헌의 종류를 이해하는 형식 접근 방식입니다. 우리는 시의 광범위한 개념에서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시를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히브리 시에서 시가 세 가지 측면을 갖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모든 시는 간결하다. 그것은 슬라이드쇼와 비슷하고, 산문은 영화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각 구절에서 매우 정의된 그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구절이 전개되면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함께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간결하고 매우 고조된 스타일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이 매우 심미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의 기본 개념은 평행성입니다. 당신은 한 줄을 말한 다음 a를 말합니다. 재진술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또 다른 각도를 제공하는 관련 진술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꾸짖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겁주게 할 것이다. 그분께서는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분노와 진노, 책망과 겁주기 사이에는 평행성이 있지만, 꾸짖음과 겁주기는 평행하지만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책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겁주는 것은 그 책망의 결과이다.

그래서 히브리 시를 읽을 때 당신이 하는 일은 진실을 듣는 입체적인 방식을 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두 가지 측면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라인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그것이 수익성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동시에 그들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고 그것은 말씀에 대한 온갖 종류의 풍부한 통찰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식 작성의 마지막 시간이 끝날 무렵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를 보고 노력하여 시편 23편을 했습니다.

시의 측면 중 하나는 물론 비유적 표현입니다. 시편 전체는 양과 보루 땅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양떼를 먹이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양 떼를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양 떼를 보호하십니다. 모든 것은 이 이미지, 상상의 언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양떼는 먹이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풀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다릅니다. 데샤는 세인트 어거스틴 잔디가 아니라 골프장 잔디, 아주 연한 잔디로 아주 좋은 잔디입니다. 그리고 회복은 잔잔한 물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양이 너무 많이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양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 양이 다시 돌아옵니다. 양은 가장 어두운 계곡을 통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에게 적을 물리칠 무기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바뀌죠. 이제 우리는 족장의 텐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왔을 때 양 우리에게 들어가게 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양 우리에게 있는 대신에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장막에 있고 동일한 진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풀 대신에 상과 잔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받이로 교체됩니다. 이제 우리는 머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적들 앞에서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의 또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면 족장의 천막과 주인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편의 진리가 성전이라는 마지막 장면으로 분위기적으로 끝납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 곧 성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이 조항이 무엇을 보호하는지 알려줍니다. 산문적으로 요약하고 싶다면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제가 시편을 사용하여 이것을 비유적인 언어로 설명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모든 것은 비유적이고 은유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은유를 바꾸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로 표현하신다면, 그것이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유라면, 저는 그 이미지를 어머니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속에서도 그 자체의 은유를 갖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시를 넘어 시편을 통해 더욱 정교하게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시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 비판을 형성하기 위한 전체적인 배경, 그것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고등비평의 결과로 생겨났는지에 대해 설명했던 때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게르만 학문에서 나오는 형식비평의 관심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독일어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문학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 면서 이러한 용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자리잡는 것을 의미하는 *Sitz im Leben* 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가? 이제 원래는 궁궐 형식의 비평으로 그들은 다윗의 저자임을 일축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 맥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시편이 유포된 삶의 환경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유래되었는가? 우리가 보게 될 그분의 시편이나

감사의 찬양과 같은 일부 시편은 아마도 가수 조합에서 성전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전을 설계하고 성전을 고대했던 다윗에게서도 유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생길 것을 예상하고 찬송가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성전을 위한 모든 돈과 성전을 위한 모든 예비금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그는 성전 설계를 맡겼습니다.

그는 성전 헌납곡 시편 30편을 지은 계관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찬송도 준비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는 성전을 위한 찬송가의 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청원 시편이 원래 성전을 위해 의도된 것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모른다. 그것은 나에게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결국 그의 엄청난 고뇌와 고통, 항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투쟁이 담긴 시들이 음악 감독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결국 성전 예배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다윗에게 개인적인 것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 시편은 음악 감독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을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간청과 그의 찬양은 우리의 사용을 위한 것이었고 우리의 간구와 찬양은 그들의 왕과 관련하여 온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에게 이 시편들을 보는 다른 방식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데, 그룹화되어 있다고 말했는데, Gunkel은 공통 단어, 공통 분위기, 공통 모티브 등을 기준으로 그룹화했습니다. 그는 다섯 가지 기본 유형의 시편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노래인 찬송가였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너무 강한 말입니다. 그는 왕의 시편을 왕을 언급하는 시편 10편으로 제한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2편에서는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왕의 시편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의 승리를 노래하는 시편 18편, 시편 20편에는 왕이 전쟁에 나가고,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제사장과 백성이 왕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21편에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옵니다.

시편 45편은 왕을 위한 결혼 노래입니다. 시편 110편은 대관식 예식입니다. 나는 설정했는데, 그는 멜기세덱과 같은 왕이고 그것은 왕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시편 10편이 있지만 모두 함께 묶인 것은 아닙니다. 시편 전체에 걸쳐서 뿌려진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전체, 즉 눈이 기본적으로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상황에서 왕을 언급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범주입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카테고리이고, 나에게는 너무 제한적이다. 세 번째 그룹은 찬송가 이후입니다. 그의 세 번째 그룹은 불평 시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불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청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 시편들은 뚜렷한 모티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청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편들은 그 안에 모티프 중 하나로 애도와 불평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원이라는 하나의 모티브로 그것들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시편 63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들은 애도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한탄하거나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기 때문에 애도 또는 불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것을 불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별은 일반적으로 문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가치 있는 구별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모두 하나로 묶어서 그것을 불평이라고 불렀습니다. 문학에서는 불평, 애도, 청원 등 다양한 이름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나는 부분적으로는 여러분의 학생들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논평을 읽고 이런 종류의 언어를 읽을 때 그 단어의 의미와 작가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찬양시, 찬송, 간구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감사하는 칭찬은 일반적인 칭찬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찬양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존재, 그분의 본질, 그분의 전달 가능한 속성, 그분의 영원성, 그분의 전능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가 한 일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추적하고, 역사 전반에 걸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을 광범위하게 추적합니다. 그것이 바로 칭찬입니다.

감사의 노래는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입니다. 넓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에게 구원을 구했고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담은 곡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고유한 유형입니다. 감사찬송 15곡이 있습니다.

청원곡이 50곡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노트에 찬양의 찬송이든 아니든 모든 시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나는 그렇게하지 않았습니다.

궁켈이 그랬어요. 내 말은, 내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거대한 작품이자 전형적인 튜턴식 독일식 방식입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정말 놀라운 작품입니다.

나는 그가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일을 마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뭐라고요? 그 큰 일을 마쳤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응, 그 사람이 죽었어.

글쎄요, 어쨌든 그는 그것을 공동체의 애도와 개인의 애도로 나누었습니다. 온 나라가 가뭄이나 패전처럼 애통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다윗이 사울리데 시대나 압살롬 반란 시대에 대적들을 향해 애도한 것처럼 개인이 애도하고 있었는지 등등. 그래서 그것은 광범위한 범주였습니다.

연대기를 읽고 있던 건겔을 읽고 있던 당시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윗이 레위 사람들에게 르 하스기아 에게 , 르하돗에게 감사, 르할렐 에게 찬양을 간구하도록 명한 역대상 16장 4절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거기 연대기가 나에게 시편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하더군요.

간구하는 일도 있었고, 찬양하는 일도 있었고, 감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 일부는 눈이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염려하는 왕이기 때문에 매우 뚜렷하고 매우 어려운 구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편 4편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면 내 마음에 큰 기쁨이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커뮤니티와 계속해서 왔다갔다하며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필요가 그분의 은혜로 충족될 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찬양의 시편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특정한 형식을 보고 있으며 우리의 방법은 시편을 광범위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에 대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한두 편의 개별 시편을 골라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전체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폭넓게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노트의 55페이지에 있고 그 중간에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6부와 7부로 나누어서 3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 두 종류의 찬양시인 찬송과 감사를 구별하고, 감사찬송과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또한 히브리어로 감사라는 단어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더 나은 번역이 없습니다. 추수감사절, 즉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감사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은 일어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공개라고 하더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모두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중의 칭찬이다.

감사한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사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단어가 고백하다라는 뜻의 토다(todah)이기 때문에 찬양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일을 하셨고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의 진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가 당신을 위해 한 일을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찬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페이지 상단에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시편에 대한 구별입니다. 그런 다음 일반적인 칭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논의한 대로 찬송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2페이지에는 감사의 찬양 노래에 관한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사실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한 가지 유형을 개발한 다음 마이너 유형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강의는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이제 찬송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내 개요가 약간 헛갈렸지만 찬송가에 관해 다섯 가지 요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찬송가의 모티브이다. 두 번째는 실제로 찬송가를 연주하고 부르는 퍼포먼스이다. 여기 조금 아래에 있어요.

그 페이지를 내려놓았어야 했는데. 네, 55페이지이고 다음 페이지를 찾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성능별.

응. 어디? 54, 64. 네.

좋아요. 그것이 바로 성능입니다. 64가 바로 그 성능입니다.

그렇다면 c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찬양하는가에 대한 신학인가? 칭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찬양의 신학. 그러면 찬양시편의 하위 유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71쪽에 있는 시온의 노래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시는 곳, 시온의 노래를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언급은 했으나 전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소위 즉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생각엔 잘못된 호칭인 것 같아요.

다소 잘못된 이름이지만 문헌에 나와 있으며 모두가 즉위 시편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정직과 학문, 독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즉위 시편인 시온의 노래를 읽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학교 수준에서 학생에게 문학을 소개하고, 문학을 소개하고, 개념을 소개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것이 적절합니다.

너무 많은 문학이 학술 문헌이기 때문에 복음주의 교수로서 항상 교류하고 평가하며 좋은 것과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별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그것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그럼 찬송가 아래 55페이지로 돌아가서 찬송가의 모티브가 무엇인지 논의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칭찬하라는 요청이자 소개입니다.

그리고 칭찬할 이유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저는 칭찬하라는 부르심이 불을 붙이는 성냥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칭찬의 원인은 불붙는 연료이다.

당신은 무엇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일치입니다. 부르심은 불을 붙이는 성냥입니다. 그러면 불 그 자체인 연료가 생깁니다.

그게 전화야. 그런 다음 종종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말로 끝납니다. 당신은 찬양하라는 새로운 부르심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는 세 가지 유형의 결론입니다. 제가 56페이지에 설명했듯이, 가장 짧은 시편을 통해 거기에서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양하라. 이제 당신께는 이유가 있으니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크시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얻을 수 있는만큼 짧습니다. 심오하고, 정말 심오합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로 인해 이방 나라들에게 주님을 찬양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당신은 세상과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행하신 일과 그들에게 의미하시는 바를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탐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제 우리는 훨씬 더 평범하고 폭넓은 찬양의 찬송인 시편 33편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57페이지를 봤습니다. 이제 저는 그 모티프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찬양으로의 부르심의 도입부인 모티브를 논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런 다음 62페이지에서 칭찬의 이유를 설명하고 64페이지에서 결론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꽤 많은 페이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론과 찬양의 부르심을 묵상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칭찬의 부르심에 관해 제가 언급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Gunkel에서 정말 많이 꺼내고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필수적인 기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부름을 받고 있으며, 주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Gunkel은 그의 기교와 게르만식 방식으로 그것을 2인칭, 3인칭, 1인칭으로 나눕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니면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는 매우 기교가 좋습니다. 하지만 요점은 명령형 분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CS Lewis와 함께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신은 자기애적인가? 하나님은 꼭 그래야 합니까? 그는 불안한가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칭찬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세요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기분이 상할 것입니다. 내 말은, 우리는 여기저기서 춤을 추며 나를 칭찬하고 쳐다보는 스포츠 선수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뭔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나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CS Lewis가 제기하는 질문입니다. CS Lewis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감탄할 만한 일이 있는데 칭찬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그림, 훌륭한 그림에 비유합니다.

그는 그림이 감탄스럽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말합니다. 즉, 너무 훌륭해서 칭찬받을 만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칭찬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보지 못하면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반항적인 사람에게 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훈계하고, 훈계하고, 바로잡는 일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글썄요, 저는 그것이 불을 붙이고 전체 회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치어리더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표현은 '네 뜻대로 노래해'다. 글썄, 나는 그 표현을 싫어한다. 당신이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래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 좋은 의도를 이해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것이 우리가 끝난 곳입니다. 58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경탄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문장의 끝에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음치이고, 소리도 들어본 적도 없고, 사랑에 빠진 적도 없고, 진정한 우정을 알지도 못하고, 누군가를 돌본 적도 없는 사람들의 불완전하고 불구가 된 삶에 비유했습니다. 좋은 책인데, 그들의 뺨에 느껴지는 아침 공기의 느낌을 결코 즐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분을 찬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의 희미한 이미지입니다.

그들은 음치입니다. 그들은 위대한 예술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신학이 약간 지루했지만,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세속적인 나이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상쾌하고 건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단지 없어졌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5편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와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58쪽에 있습니다. 와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6절에서는 므리바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며 그 날 광야 맛사에서 그들이 물이 없어 원망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고 했습니다. 그러니 불평하는 대신에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을 넘어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아요. 59페이지에서 또 다른 고려 사항은 열정의 분위기입니다. 미지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워도 좋아하시며, 당신도 덥거나 추울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멜라니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엔 멜라니가 거기 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녀는 미지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모두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열정적인 정신, 거기에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을 원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Gunkel이 모든 것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공연의 형태가 그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음악, 노래, 노래, 악기로 이루어지며, 음악은 이에 동반되어 우리의 열정을 표현합니다. 움직임을 가지고 수행됩니다. 그들은 그와 그의 문 앞에 들어가고 실제로 행렬이 있습니다.

그들은 박수를 친다. 그들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손을 들어줍니다.

밤에 여호와와 그의 집에서 수종드는 여호와와 그의 종들아, 여호와와 그의 종이 될 레위인 곧 제사장들이여, 이것이 인용이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그들은 밤새도록, 하루 종일 서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으며, 성소에서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형식주의에 반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의 위치를 통해 강조되는 주요 단어인 c.3이 분위기를 지정합니다.

기뻐하고, 높이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시편 자체의 요점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었습니다.

제사, 동물 제사로 찬양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기 전인 신약의 도래와 함께 이제 글 속에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달콤한 향기이지만 동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이 없어도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기도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달콤한 향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살아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찬양한다면, 우리는 현실에 완전히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그것은 열정을 표현하는 시편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러므로 찬양하라는 이 부르심에 대해 묵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를 수행하고 열정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누가 이 일을 하는가입니다. 누가 수행하나요? 그것은 합창단이나 회중이 행합니다. 그러므로 고대 이스라엘에는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레위 길드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고라 자손의 시가 있고 고라 자손의 시와 아삽의 시가 있느니라. 이들은 이스라엘의 다른 길드, 즉 레위 길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은 성전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고라 사람들도 문지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한 성전 노래꾼들이었는데, 그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 회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걸으로는 주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할 때,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일종의 합창단 지휘자가 있었다고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Gunkel은 Miriam에게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선지자 미리암과 그의 누이 아론이 손에 소고를 잡았고 모든 여인도 소고를 잡고 춤추며 그를 따르더라.

그런 다음 미리암이 그들에게 노래를 불렀고 그들은 모두 이 찬양의 춤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던 미리암의 인도를 따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합창단과 회중은 자주 언급됩니다. Gunkel이 분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그는 방금 모든 것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그의 책을 스캔했고 이것이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약간 수정했습니다. 그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도덕적 명예를 받습니다. 그는 칭찬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음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Amazing Grace를 부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복음성가를 부르며 예수님을 문학 장르로 찬양합니다. 이 사람들은 마약을 하고 있으며 젊은이들을 도덕적으로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은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 사중주도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나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자들, 정직한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그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그를 찾는 자들, 그 안에 자신을 숨기는 자들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은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형용사요 수식어들이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가스펠 음악에서 듣는 것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나는 매우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고 확신하지만 그들이 전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평가해야 합니다. 찬양 예능을 만들 때, 연극을 할 때 고민이 됩니다. 시편 115편 여호와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소서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가수들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가수들을 칭찬합니다. 나는 그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에게. 당신은 시편 기자를 결코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칭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저는 Gunkel이 우리에게 제공한 이러한 성찰 중 일부가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나는 아삽의 시인 시편 50편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며 찬양과 찬양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적절한 것입니다. 딱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14일에 하나님께 희생 제물, 감사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한 후에요. 즉, 그분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당신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적절한 반응이라는 것을 알고 가장 높은 곳 까지 서원을 이행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 하면서 모든 사람이나 친구, 공동체가 함께 식사하는 완전한 희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 날에 그들이 나를 부르느니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요 너는 나를 존경하리라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무슨 권리로 내 법을 암송하느냐? 나는 내 언약을 네 입술에 두겠다. 너는 교훈을 싫어하니 내 말을 네 뒤에 던져라.

도둑을 보면 그들과 합류합니다. 너는 간음하는 자들과 운명을 같이 하였느니라. 너희는 입으로 악을 행하며, 혀를 이용하여 속이는구나.

너는 앓아서 네 형제에 대해 증언하고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고 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할 때에 내가 잠잠하여 너희는 나도 너희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거니와 내가 이제 너희를 심문하고 너희 앞에 고발하노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할 자가 없이 내가 너희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완전한 자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시니 악인이 그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위선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구원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얼마나 자주 입으로 죄를 짓고 잘못된 말을 하였습니까? 우리 모두가 가지고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큼니다.

용기를 갖고 격려해 봅시다. 그는 온 세상이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흥미로운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모든 사람이 그를 칭찬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여기에 모든 데이터, 전 세계가 있습니다. 61페이지에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 있는 모든 구절을 당신에게 줍니다. 땅과 많은 섬들과 땅끝과 세계의 모든 거민과 모든 육체와 호흡이 있는 모든 것과 열국의 족속들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땅의 나라들과 모든 왕들과 방백들과 심지어 I Am의 적.

그는 모두를 원합니다. 즉, 이방인들이 그를 찬양해야 할 이 모티브는 사소한 모티브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요구하는 모든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내 생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창세기 12장 1-3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본토와 본토와 민족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하기 어려운 일이라 이방인과의 인연을 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오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는 그 일을 하는 데 매우 느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문화, 전통, 역사에서 벗어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세례를 받을 때 당신을 분리시키는 세례가 있으며 온 세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동일시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세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에게 내가 속해 있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데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옛 삶에 대해 죽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 자신을 분리하고 새로운 공동체에 합류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다.

유대교에서는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중국 문화에서 당신은 일본인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세례를 받을 때 사람들이 당신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차별화된 마크입니다. 나는 단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지역 사회를 떠나십시오. 내가 정말로 가족을 떠난 걸까? 글썄요,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았나요? 당신이 가족을 떠났는지 여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새로운 신분을 맺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헤어지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는 내가 당신을 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축복에 관해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생명이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당신에게 채워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두 가지 축복의 사상은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네가 땅을 정복하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아이디어는 배가되어 승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신약성서에 이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이 육체적으로 번식하도록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영적으로 번식하도록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은혜와 진리, 그리고 아름답고 경이로운 모든 것의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글썄, 그것이 그가 구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열매 맺고 승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들이 너희를 저주하면 나도 그들을 저주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히브리어로 저주를

뜻하는 두 가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당신을 저주한다면 히브리어 단어는 칼랄입니다.

칼랄은 가볍다는 뜻이다. 그들이 당신을 하찮은 존재, 다른 인간, 다른 남자로 대한다면, 그것이 바로 저주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폄하하고 당신은 다른 누구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역사적 예수를 얻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그가 단지 또 다른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예, 당신은 좋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또 다른 인간일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를 다른 인간으로 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저주야. 사람을 가볍게 대하는 것이 칼랄(qalal)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런 짓을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은 arah입니다. 그것은 다른 단어입니다. 그것은 축복의 반대입니다. 그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불임 상태가 되어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무관심하게 대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교회가 스스로를 재생산해야 하는 방식으로 재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만큼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너희를 대수롭지 않게 대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당신을 축복하는 사람이 당신을 축복의 근원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너희를 축복하는 자는 너희가 번성하기를 원하느니라. 너희가 번성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승리하게 하리라. 그것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방인들이 우리를 축복하면 너희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실상 모든 나라는 내가 여호와인 줄, 이는 큰 자인 줄 알아야 할 것이요(시편 100편), 내가 여호와요 그가 하나님인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며 그의 목장의 양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축복에 들어가며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중재왕국의 중재를 통해 민족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야말로 선교적인 찬송가입니다. 오늘날 그것은 믿지 않는 시온주의와 유대인들에게서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대수롭지 않게 대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끊었습니다. 로마서 11장을 읽으면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입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새 경륜의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세요. 그분은 구원의 분이시며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를 소유하고, 그가 성장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차례로 증가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글썄, 우리야. 당신과 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우리가 실제로 누구인지 이해하기 위해 그 점을 지적하는 두 구절을 살펴보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는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은 한 절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과 그 장의 끝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책 제목이 적힌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3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모든 교회를 대표할 때까지 말씀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없느니라.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대로 상속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끊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영적인 씨는 바로 여러분과 나입니다.

예수님을 대표하여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 성경을 통해 여러분의 아버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 기드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당신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번성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아니면 다시 성경의 다른 구절인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곧 이방인 교회에게 말한 것과 같이 해외에 있는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은 인종적 정체성과는 별개로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은 교회에 흠어진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대부분은 이방인들이니라. 그리고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축복할 것이고, 당신도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나중에 시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노래할지어다 온 땅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노래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어라, 당신의 행위가 어찌 그리 놀라운지요.

당신의 힘이 너무 커서 당신의 적들이 당신 앞에서 움츠러들었습니다. 온 땅이 당신께 경배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회중과 레위 성가대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 그를 찬송하고 온 땅이 그를 찬송하도다. 보기만 해도,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 천둥소리가 들리고 산 등이 보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말은, 내가 창조물을 볼 때 그것은 이해를 초월하며 하나님께 엄청난 찬양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술, 그 아름다움을 만든 신은 대체 얼마나 대단한 신인가. 그리고 아시다시피 컴퓨터는 정말 환상적입니다. 우리는 지구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산, 강, 시내에서 이런 사진을 얻습니다. 방금 나는 나를 압도하는 새들의 노래와 작은 곤충들의 사진을 잔뜩 보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 모두입니다.

그것은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나는 나 자신이 그분을 찬양하리라는 것입니다.

Gunkel은 약 100가지 형태를 계산합니다. 그는 그것들을 모두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한번은 그가 그것들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 달러를 모두 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그 유명한데요. 내 영혼아, 내 가장 깊은 존재여,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그의 이익이다. 우리는 그분께 생명을 빚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숨결까지도 그분께 빚지고 있습니다. 그가 숨을 쉬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의 혜택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멋진 저녁 식사와 와인 등을 먹습니다. 내 영혼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유익에 대해 주님을 찬양하라. 괜찮은.

이제 우리는 찬양의 원인인 본체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는 즉시 64페이지의 신학인 c 지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학, 칭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당신은 이것으로부터 전체 신학을 쓸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시편에 대한 느낌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내용을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책 전체에 대한 폭넓은 감정을 갖고, 칭찬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칭찬하고 있는지를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10개 부분으로 나눌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첫 번째 요점은 사람들 자신의 신학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그들의 신학은 그들의 찬양의 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찬양의 말씀을 통해 신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영감받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미로운 구원이 된 그들의 찬양의 말을 읽습니다. 우리는 열정적인 찬양 속에서 신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신학을 배우는 정말 훌륭하고 적절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무미건조한 담론, 체계론에서 얻는 과학적 분석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찬양의 열정으로 신학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 훌륭한 자료를 이렇게 분석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개자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Gunkel은 바빌로니아와 이집트의 유사점에서 순수한 칭찬을 거의 얻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거의 항상 청원에 첨부되는데, 이는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멀어지는 근본적인 동기가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자, 이제 65페이지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전달할 수 없는 속성에 대한 강력한 이미지를 그려냅니다. 이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공유 불가능한 속성과 그분의 공유 가능한 속성을 구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전달할 수 없는 속성은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속성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여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달 가능한 속성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가질 수 있는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전달될 수 없는 속성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원성, 그분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것, 전능하심일 것입니다.

내가 참여할 수 없는 것. 나는 그것들을 존경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으며 그것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나는 그것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다.

반면에 그분의 전달 가능한 속성은 그분의 은혜, 자비, 진리, 공의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비출 수 있는 전달 가능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자들 모두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달 불가능한 것과 전달 가능한 것을 구별합니다. 이제 전달 가능한 속성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 문단에 있는 그의 능력입니다. aseity에 따르면 그것은 라틴어 단어입니다.

"a"는 from을 의미하고 "seity"는 self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가 그 자신으로부터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신은 파생물이 아니다.

누구도 신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자신에게서 왔으며 뭔가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지만 존재하는 것은 있습니다.

는 무엇입니까? 유물론자는 물질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신은 정신이고, 그것은 철학의 근본적인 구분입니다. 현실은 무엇이고 무엇이 현실인가? 물질은 현실인가, 전체 현실인가? 나는 물질이 법칙에 의해 훌륭하게 조직되어 있지 않다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즉, 만물 전체에는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은 지능을 가정합니다. 누군가는 모든 것이 작동하는 법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것 같다.

따라서 적어도 성경이 모든 것이 그분께 달려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나에게는 무엇이든지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진실이다.

그것은 정의입니다. 예수님의 어머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예수님의 어머하심을 대표하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 예수님과 같지 않은 모든 것은 미혹입니다. 그것은 위조품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거기에 계셨던 말씀이십니다. 당신이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이시며, 그것이 실제 존재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일시적이며 모든 것은 첫 번째 원인에 의존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Gunkel의 말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시편을 인용하면 나에게도 여호와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하나님으로 남아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산이 생기기 전부터 땅과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주의 눈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니이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시간 이전에 땅을 세우셨습니다.

하늘은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 이것들은 지나가겠지만 당신은 남아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당신은 그것을 옷처럼 바꾸시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당신의 세월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 당신의 작품이 얼마나 됩니까? 땅은 당신의 피조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말했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명령하자 그것이 거기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당신이 제때에 음식을 제공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것을 줍니다.

그들은 그것을 수확합니다. 당신께서 손을 펴시니 그들이 선함으로 만족하리이다. 당신은 얼굴을 숨깁니다.

그들은 움츠러든다. 당신이 그들의 숨을 쉬면 그들은 죽어서 먼지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습니다. 시보다 어떻게 더 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말은, 내가 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나는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쓰여진 가장 위대한 문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심미적으로 완전 만족스럽습니다. 그것은 지적으로 도전적이고 항상 훌륭합니다. 마치 바흐의 음악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푸가 등에서 항상 새로운 것을 듣게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참으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정말 특권이군요. 오 내 영혼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수업이 있음을 인해 주님을 송축하라.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고 누리며 말씀을 읽고 사역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이와 같은 성경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Bill Mounce 등을 위해 하나님을 축복하십시오. 좋아요.

다음 내용과 더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미 다루었고 영원할 뿐만 아니라. 알다시피, 나는 방금 모든 구절에 대한 Gunkel의 서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두려우시며 온 세상 위에 지극히 높으시고 위엄 있고 위대하시며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있으시고 행사와 행사가 크시며 지식이

무궁하시며 기이하심이 무궁하시도다. 그래서 이것은 그의 의사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그의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에는 누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좋아요.

이것이 바로 그분의 백성들의 영광적인 찬양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분의 전달 불가능한 속성입니다. 그것이 신학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분의 전달 가능한 속성과 그분의 주요 전달 가능한 속성에 대한 강력한 이미지가 예를 들어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6의 다섯 가지 기본 속성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거기로 돌아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금송아지의 장면이고 이스라엘은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풀을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말을 해도 괜찮다면, 젠장. 상상할 수 있니? 배변하고 당신은 그것을 숭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그리고 어떻게 당신이 사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시키고 간음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을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대신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자리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불안정하고, 도망가고, 성적 매력이 있고, 자존심이 강한 mammon과 돈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비교하면 어떻게 칭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너무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방향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달 가능한 속성이 있습니다(출애굽기 34.6장). 그리고 이스라엘은 배경에서 벗어나 금송아지를 맡기고 그들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이 풀 먹는 황소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종의 부두교, 이교 종교에서 신들의 다산을 모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섹스 난교를 가졌습니다.

산기슭에서 상상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왔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 분노가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악을 보고도 분개하지 아니하면 죽은 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도덕적인 분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예배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덕적 분노를 품고 있으며 모세도 산에서 내려와 그것을 보고 돌판을 깨뜨릴 때까지는 그것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죽을 것 같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우리는 당신에게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 것입니다.

모세는 당신이 말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겸손한 사람인 모세는 온 세상이 모세에게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플랜 B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천사가 당신보다 먼저 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모세는 아니, 나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원해. 당신은 나와 함께 있어야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계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제도가 있지만 모세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백성과 함께 거하실 수 있다는 그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보여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여호와라 선포하니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크며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패역과 악을 용서하는 하나님이니라 죄.

자, 그의 연민과 풍부한 사랑은 괜찮습니다. 여기에는 그의 라하뫼, 하나님, 에렉이 포함됩니다. Apayim, Heseed Ve'emet. 가끔은 히브리어로 생각이 더 잘 날 때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히브리어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라하뫼(Rachamim)인데 이는 그의 자비를 의미합니다. 자궁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것은 스스로 먹을 수 없고, 깨끗하고, 목욕할 수 없고, 온전한 연민과 자비를 가질 수 없는 무기력한 아이에 대해 어머니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는 과분한 곳에 친절을 베풀어 주십니다. 에렉 Apayim은 긴 얼굴, 초조해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완전히 인내심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렉 베 에메트의 신실함과 실패하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은혜롭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글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는 단지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이제 우리는 죄를 처벌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가장 좋은 점은 당신이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유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분의 은혜와 희생과 용서를 받아들이면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악했을 수도 있고, 우리 골방에 어떤 해골이 있더라도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그것들도 우리에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 죄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살 수 있고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전달 가능한 속성입니다.

이것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Bruce Waltke입니다. 일곱 번째 모임은 찬송가, 찬양의 이유, 찬송가 신학입니다.